지상최대의 공짜와 심일점(心一點)

(시편 45:1~17)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10.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6.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상최대의 공짜와 심일점(心一點)'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상최대의 공짜와 심일점(心一點)'
남자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여자를 홍일점(紅一點)이라고 하고, 여자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남자를 청일점(靑一點)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고정시켜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심일점(心一點)입니다. 이 지구에는 땅과 하늘과 별들을 다 합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많은 삼라만상의 대상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두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둘 때에 삶에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바로 심일점입니다.
한편 지상 최대의 공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난 23일에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의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코로나로 향하는 여객기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무원들이 무엇인가를 잔뜩 가져와서는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노트8 이었습니다. 이 고가의 상품을 200명 승객 전원에게 공짜로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건으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을 전량 회수시켰던 발화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비행

기가 바로 이 비행기였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의 1주년과 갤럭시노트8의 출시를 맞추어서 역발상의 광고를 시도했습니다. 스페인의 삼성전자 페이스북에 “최근까지 우리는 노트7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날 수 있다”라고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출시된 지 5년도 넘은 폰을 쓰는 저로써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봤더니 사람들이 상품을 받고 황당해하는 가운데 기장의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을 듣고 이 벤트의 내막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이들처럼 기뻐하면서 포장을 뜯어 사진을 찍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공짜를 받을 때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100만 원쯤 하는 갤럭시노트8을 받았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 공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심일점으로 삼을 때에 지상 최대의 공짜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선은 이리저리 향할 수 있지만 마음의 시선만큼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시선이 흔들리는 이유는 비어있는 마음 채움 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죄의 체질로 인해서 마음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세상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원죄의 체질입니다. 세상을 탐색하던 마음이 어떤 대상을 포착하고 그것을 마음에 흡입하려고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죄의 체질로 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려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하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일점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지상 최대의 공짜 이벤트는 일어납니다.
이베리아 항공의 비행기에서 200명의 승객들이 공짜로 갤럭시노트8을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공짜를 받는 맛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帝王詩)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시편에 수록된 일곱 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의 결혼식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는 메시아를 왕으로 예언하는 중에 그러한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왕은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를 뜻합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상을 부를 때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상 위에 사람은 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악의 판단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왕의 자리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왕은 말을 시작하는 자이고 법과 계획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모사꾼들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왕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 시작하는 것이지, 모사꾼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하였는데 표현적으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왕비에게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름답다’라는 말은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시선을 끄는 것이 아름다움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무관심과 아름다움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했을 때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왕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자녀들보다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음을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있을 때에 눈으로는 부모를 보고 입으로는 부모와 말을 하지만 마음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한 명의 사람일 뿐이기에 모든 사람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시선을 보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모든 처자든 형제자매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선을 보내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의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자 심일점 되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의 시선을 두어야 될 심일점이 되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심일점이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에 내게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은혜를 입듯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 눈길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세상에서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들어와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복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지상 최대의 공짜입니다.
갤럭시노트8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하물며 주운 로또로 10억에 당첨이 되었다면 기절할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상 최대의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복이야 말로 지상 최대의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참새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신 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복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시선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대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의 표현력입니다.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는 말에서처럼 표현에 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기가 막히는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묘하게 엮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공짜 이벤트가 3~7절, 8~15절, 16절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3절을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출정길에 오르는 왕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

한 것은 세상에 묶인 사람들에게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일어납니다. 단 예수님을 예배당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세상에 대한 승리는 공짜로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대한 승리의 모습이 7절까지 열거되는 가운데 이를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돈 없어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갖기를 소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도 온전한 만족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야 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재산을 불립니다. 그래서 재벌이 됩니다. 그러나 재벌 자녀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온전한 만족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시선을 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시선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상하심을 알고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기에 시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드릴 때에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곧 왕이신 예수님의 왕비가 됩니다. 10~11절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결혼식을 연상하면서 부른 노래에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으시는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기시기에 모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공짜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의 좋음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두 가지 복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복은 세상에 묶인 우리를 풀어주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각 방면에 이름 있는 석학들이나 재벌들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승리한 이들에게는 대단하게 여겨졌던 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승리에 화답하는 두 번째 공짜가 하늘에 것을 가졌을 때에 느끼는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세상일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과 같습니다. 이베리아 항공의 비행기에 탔을 뿐인데 갤럭시노트8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올라타기만 했을 뿐인데 하늘에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는 세 번째 복은 이 세상에서 나도 작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신부로 표현했던 우리를 이번에는 왕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의회(유대사회의 최고의결기관)에 잡혀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얻어맞고 잡혀왔지만 이 자리에서 실제 판단하는 왕에 자리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공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왕입니다. 세상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왕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드려 세상을 이겼고,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바로 내 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송구스럽지만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자들은 만인지상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 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사의 수위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수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위 자리를

주셨을 때에는 사장의 말에 따르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장 말을 따르라고 하시니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서 과장으로 일하게 하신 이상 이미 회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하는 부장님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상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상전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 하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며 마음의 시선을 드릴 수 있다면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공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하는 원죄의 체질에 잡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앞에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 전개되더라도 마음만큼은 십자가 예수님께 고정함으로서 지상 최대의 공짜 이벤트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